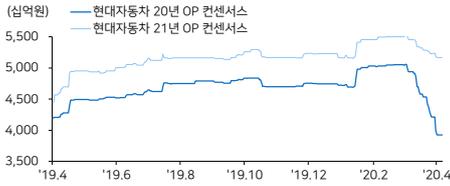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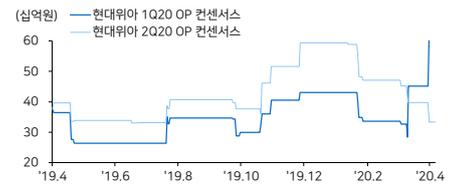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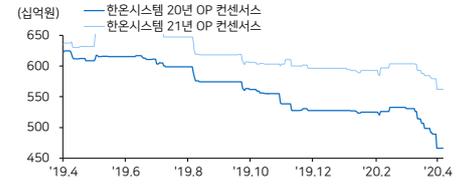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미국 수출 막힌 '펠리세이드', 국내로 쏟아진다 (머니S)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펠리세이드 4월 미국 수출물량 4600여대를 국내 시장에 판매할 예정. 2019년부터 현대차는 월 평균 4600대의 펠리세이드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음.
<https://bit.ly/2VrAnLa>

미국, 코로나19 환자 급증세 주춤...진정 국면 들어간다 (연합뉴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10일 48만명을 넘긴다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신규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율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주(州) 정부들에서는 자택 대피령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음.
<https://bit.ly/3cbYLqV>

세계공장 70% 섀시만... 車업계 '생존형 짝짓기' 속도낸다 (한국경제)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흔들리고 있음. 세계 자동차 생산공장 열 곳 중 일곱 곳이 '섀시'만. 일본기업들은 북미 지역에서만 3만2000명을 일시 해고. 전문가들은 자동차그룹 간 합종연횡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
<https://bit.ly/3a3llt>

중국 상하이에 아시아 최대 '로보택시 운영센터' 설립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로보택시 운영 센터가 설립됨. 중국의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오토엑스(AutoX)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상하이에 8만 평방 미터 크기의 아시아 최대 규모 로보택시 운영 센터를 세웠다"고 발표.
<https://bit.ly/3cde3Fh>

미, 유럽 차딜러 "영업 중단하니 그만 보내라"...자동차 최악의 '수출 절벽' (한국경제)

기아차가 국내 공장 세 곳을 1주일간 멈춰세움. 코로나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차를 팔 곳이 없어졌기 때문. 현대차도 라인 하나를 멈추기로 함. 현대·기아차가 해외 수요 부진을 이유로 국내 가동률 중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
<https://bit.ly/3a1f5cM>

中 '코로나 전염' 끝내고 내수 재건 가속...친환경車 규제 완화 (한국경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내수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음. 중국 정부는 파격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내수 회복을 꾀한다는 전략. 올해 말 폐지할 예정이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함.
<https://bit.ly/3a2ZhqG>

日, 현대·기아차 제치고 1분기 中 자동차 시장 주도 (더그루)

일본 완성차 브랜드가 현대·기아차를 제치고 중국 자동차 1분기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승용차시장정보분석회사가 내놓은 3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 분석 결과 일일 평균 판매량이 3만683대로 전년 대비 36% 감소.
<https://bit.ly/2y7pmXu>

Tesla Giga China-Made Model 3 Order Skyrocket, 10 Orders in 1 minute (Tesmanian)

One of our reader provided the latest update of the order status. As you can see from the picture below, 10 orders came in within 1 minute (4:35pm Beijing time) from different cities of China.
<https://bit.ly/3a5CSbi>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